

산림청-조계종 “숲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최병암 산림청장(오른쪽서 세 번째)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왼쪽서 세 번째)이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과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한반도 평화 정착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과 전통 사찰과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를 함께 인식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각자 보유한 자원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평화의 나무 심기 등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캠페인 공동 추진을 비롯해 평화의 나무 심기·숲 조성 등을 통한 탄소중립 평화 활동과 사찰 주변 산림 보호 및 공익적 가치 증진, 전통 사찰 및 문화재 보유사찰의 산림보전 및 활용 증진 등이다. 산림청은 우리 숲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사회실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종교계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최병암 청장은 “숲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실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조계종을 비롯한 종교계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평화 추구하고 기후변화 위기 대응은 범국민적인 과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❶



천년의 푸르름을 간직한 소나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6개월

**감염목의 훈증처리 후
6개월까지는 훼손 및 이동 금지**
※ 딸감등으로 무단사용 금지.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찹질방, 조경업체 등
유통·취급 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로 작성비치**
※ 위반시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588-3249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이나
감염 의심목 발견시 신고**
※ 관계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잘못된 상식 바로 알기

- | | |
|--|--|
| <p> Q 재선충병 때문에 소나무가 3년 내 멸종하나요?</p> <p>A 소나무는 재선충병 방제를 전혀 하지 않아도 단기간 내 소나무가 멸종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p> | <p> Q 재선충병이 '소나무에이즈'라는 표현이 맞나요?</p> <p>A 재선충병과 '에이즈'와는 감염·치료 특성 등이 다르니 '소나무에이즈'라는 표현은 부적절 합니다.</p> |
|--|--|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류에 피해를 입히는 1mm 내외의 작은 선충으로, 감염 시 100% 고사시키는 병.